선생님 확진되면 수업은 누가 하나요

광주 일부 학교 수업 공백·교직원 피로 누적 현실화 '대책 시급'

자습·인성수업 대체…시교육청 "퇴직 교원 등 300명 공유할 것"

"코로나19 확진 선생님을 대신해서 수업에 들어가지만 자습을 할 수 밖에 없어요."

6일 광주 초·중·고교 등에 따르면 교사들이 다수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일부 학교에서 수업 공백과 교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확진 교사가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하는 탓에 해당 교사들의 수업을 교장, 교감들이 메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공 과목이 다를 경우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있다. 인성교육 시간으로 수업을 대체하기도 한다.

중학교의 A교사는 "어쩔 수 없는 교사들의 코로나 감염 때문에 수업을 메우고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초기에는 학생들이 감염돼 온라인 수업을 했지만, 이젠 학생들이 등교해 교실에 있는 데 수업할 교사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코로나 확진 교사가 직접 대체교사를 밖에서 모셔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수업을 대신할 교사마저 구하지 못해서다.

대체교사를 구하지 못해 코로나 확진 교사가 재택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확진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 수업을 녹화해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교사들도 있다고 한다.

고교 B교사는 "현재 특정 교사가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같은 과목 선생님이 수업을 대신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대체 수업으로 교사들의 피로감이 누적돼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우리 학교에서는 다행히 같은 과목 교사들이 감염되지 않아 그런대로 버티고 있는데 같은 과목에서 둘 이상 교사가 감염되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교사들의 수업 공백이 현실화하자 광주시교육청은 단기 수업 지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나섰다.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감염 교사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장기 대책이다.

단기 수업 지원 인력풀은 퇴직 교원과 시간강사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시 교육청은 이들의 전공 과목 등 경력을 전산화해 일선 학교에서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일선 학교는 현직 교사가 코로나에 감염돼 수업 결손이 발생하면 단기 수업 지원 인력 풀을 활용할 수 있다.

시 교육청은 인력풀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사범대학 졸업생들을 인력풀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은 장학관과 장학사들을 수업지원 인력으로 투입하기로 한 전남도교육청과 달리 장학관과 장학사들은 교육청 본연의 업무만 하도록 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면히 살피고 각종 요구 및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지원해 학습격차를 줄이고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남구TV 영상 공모전

광주 남구, 춤·연기·애니 등

광주시 남구가 유튜브를 활용한 '남구TV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남구는 남구만의 숨은 매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의 장을 넓히기 위해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남구를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춤, 연기, 드라마 영상, 애니메이션 제작 등 소재를 자유롭게 선정해 30초~3분 분량으로 제작하면 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팀을 구성한 뒤 단체 촬영한 영상 작품을 출품해도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300만원이 주어지며, 최우수상은 200만원(1명), 우수상은 50만원(3명), 장려상은 30만원(5명)을 받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필사의 탈출 체험 6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을 찾은 학강초등학교 학생들이 계곡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해 줄을 이용해 탈출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버스킹 공연과 함께 하는 '충장로 불금'

광주 동구, 8일부터…'버스커즈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과 충장로 일원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6일 동구에 따르면 오는 8일 오후 6시30분 5·18민주광장에서 '웃음공장'과 '미스타 갓' 두 팀을 초대해 다양한 퍼포먼스와 공연이 열린다.

이번 버스킹 공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젊은 예술가들이 열정과 끼를 발산하는 동시에 다가올 '제19회 추억의 충장축제'와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4~5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30분 5·18민주광장과 충장로 등 도심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고, 젊은 예술가들의 참여율과 관객들의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연중 상설 공연도 추진한다는 게 동구의 구상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공연 기회가 적은 예술단체와 젊은 예술가들에게 열정과 끼를 맘껏 발산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버스킹 공연을 계기로 앞으로 있을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성공 개최를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청년들, 지방선거 앞두고 목소리 낸다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오늘 시청앞서 출범식·14대 정책과제 제안

광주지역 청년들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제시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

광주지역 청소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광주청소년정책연대'는 7일 광주시청앞에서 출범을 알리고 청소년을 위한 공약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18세의 선거권이 보장 됐지만, 20대 대통령선거에 청소년을 위한 공약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6·1 지방선거는 21만여명의 청소년이 유권자로 참여하는 첫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광주시장·광주시교육감·구청장 후보들에게 청소년을 위한 14대 정책과제를 제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은 ▲청소년 수당지급 ▲청소년 성장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 제도 시행 ▲청소년문화의 집과 생활형 청소년 자율공간 확충 ▲대안학교 예산지원 확대 및 학교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 ▲10대 시민 참정권 교육 강화 및 청소년 모의투표 실시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가정 밖 청소년 쉼터 확보 등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채소 잔류 농약 제거는 '흐르는 물'이 최고

시 보건환경연구원 발표 77.0% 제거 효과…데치기·식초 담그기 등은 40~50%대 그쳐

채소에 묻은 농약을 없애는 데는 흐르는 물에 씻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6일 봄철 소비량이 많은 채소별 잔류 농약 제거 방법 비교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상추, 깻잎, 쌈추, 시금치, 쑥갓 등 5종을 대상으로 클로르페나피르, 루페누론, 플루다이옥소닐 등 농약 10종 검출률을 비교했다.

제거 방법은 흐르는 물 세척, 담그기, 식초·베이킹소다, 초음파 세척기, 알칼리성 전해수 사용, 세제를 활용하는 방법, 데치기, 끓이기 등 9가지를 썼다.

방법별로 5종 채소 모두 흐르는 물 세척에서 평균 77.0%의 잔류 농약이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가 가장 컸다. 열을 가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데치기와 끓이기는 각각 54.9%, 59.5%의 제거율을 보였다. 나머지 방법에서는 43.7~56.3%로 제거율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채소별 제거율은 상추 67.4%, 깻잎 59.8%, 시금치 55.1%, 쑥갓 54.3%, 쌈추 40.6%였다. 같은 농도의 농약을 뿌린 뒤 방법별로 잔류 농약의 농도를 비교한 수치라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김애경 광주 각화 농산물검사소장은 "껍질을 제거할 수 없는 상추, 깻잎, 시금치 등은 과일보다 잔류 농약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니 더 세심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